

결합가와 정보구조

-독일어 장소동사의 결합가 실현 문제에 대하여-

강병창(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잘 알려져 있듯이, 결합가 이론 Valenztheorie은 독일어권 학자들에 의해 기초가 다져져 발전해 왔고, 이 이론의 핵심이 되는 결합가 Valenz의 개념은 독어학 영역 뿐 아니라 오늘날 주도적인 다른 문법이론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합가 이론은 동사의 결합가에 묶인 성분인 보충어 Ergänzung와 결합가에 묶이지 않은 성분인 첨가어 Angabe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구분의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물음은 결합가 이론의 “그레트헨 문제 Gretchenfrage”로 불릴 만큼(Nikula 1999: 390) 연구자들을 아직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성분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보충어와 첨가어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문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보충어의 경우에도 삭제될 수 있는 ‘임의적인’ 보충어를 따로 설정해야 하고, 자유롭게 보태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첨가어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첨가어를 별도로 두게 되는, 언뜻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후의 논의에서 다양한 종류 또는 층위의 결합가와 다차원 결합가 모델들을 낳는 결과로 이어졌다.²⁾

1) 문헌에 따라서는 “Ergänzung”과 “Angabe” 대신에 여러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Storrer [im Druck] 참조). 예컨대 IDS-Grammatik(1997)에서는 “Ergänzung”을 “Komplement”로, “Angabe”를 “Supplement”로 고쳐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용어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Ergänzung”의 경우는 “보충어/보족어”가, “Angabe”의 경우에는 ‘첨가어/부가어/(자유)진술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들이 독일어 문법교육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보충어/보족어” 대신에 “채움말”, “첨가어/진술어” 대신에 “보탬말”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2)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예컨대 Ágel(1995), Jacobs(1992b, 1994), Storrer(1996), Zifonun(1995)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사의 결합가(또는 생성문법론에서 말하는 서술항구조 Argumentstruktur)를 기술할 때 특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독일어의 부사어 Adverbial, 특히 장소 및 방향 부사어에 초점을 맞추어, 보충어와 첨가어 구분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보구조 Informationsstruktur 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보충어 부사어의 임의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

현재 결합가 연구에서는 통사구조상의 의무적 실현이라는 기준만 가지고는 결합가에 의해 요구되는 보충어와, 결합가에서 자유로운 첨가어를 구분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보충어도 존재한다는 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보충어와 첨가어를 구분하는 데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독일어의 장소동사³⁾는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동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균호(1999b)는 위치동사 *wohnen*을 본보기로 들어 이 동사의 결합가에 대한 기술이 학자들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1)에서 *in Berlin*과 같은 장소 부사어와 *luxuriös* 같은 양태 부사어에 대한 판단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 (1) a. Dana wohnt *in Berlin*.
 b. *Dana wohnt.
 c. Dana wohnt *luxuriös*.
 (2) Dana wohnt *luxuriös in Berlin*.

3) 장소동사 *lokales Verb*는 Maienborn(19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해 볼 수 있다.

- 위치동사 *Positionsverb*: *liegen, sitzen, stehen, wohnen, ...*
- 사역 위치동사 *kausatives Positionsverb*: *legen, setzen, stellen, ...*
- 자동 이동동사 *intransitives Bewegungsverb*: *gehen, laufen, rennen, ...*
- 타동 이동동사 *transitives Bewegungsverb*: *schieben, werfen, ziehen, ...*

곧, (1b)를 근거로 하여, (1a)와 (1c)에는 두 종류 부사어 모두를 동사 *wohnen*의 결합가에 묶인 보충어로 보고 서로 같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두 종류의 부사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2)의 경우에는 양태 부사어를 결합가에서 자유로운 첨가어로 보기도 한다. 또 장소 부사어와 양태 부사어를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따로 또는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보충어로 파악하기도 한다.

장소동사의 보충어 부사어 실현의 임의성에 대한 문제는 Maienborn(199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3)과 같은 문장들을 보면, 위치동사와 이동동사가 요구하는 장소 및 방향 부사어는 임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를 보면, *wohnen*, *lehnen*과 같은 위치동사나 *stellen*, *legen*과 같은 사역 위치동사는 장소 부사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Rita liegt/sitzt/steht/kniet.
- b. Rita geht/läuft/humpelt.
- (4) a. *Rita wohnt/lehnt.
- b. *Rita stellt/legt das Buch.

언뜻 볼 때 장소 부사어 실현의 임의성은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동사 각자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문장들을 보면, 그러한 임의성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 어휘항목의 특이성질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주어의 선택에 따라 문법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5], [6] 참조),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으로 평가되었던 것도 양태 부사어의 도움으로 반듯하게 될 수 있기([7] 참조) 때문이다.

- (5) a. Rita liegt in der Hängematte. - Rita liegt.
- b. Das Zimmer liegt im Erdgeschoss. - *Das Zimmer liegt.
- (6) a. Rita steht vor der Uni. - Rita steht.
- b. Der Wald steht auf der Anhöhe. - *Der Wald steht.
- (7) a. *Das Zimmer liegt.
- b. Das Zimmer liegt ruhig.

이렇게 장소동사의 보충어 부사어가 보이는 임의성은 단순히 통사적인 삭제 가능성이거나 어휘적 속성에만 기대어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다차원적 결합가 모델이나 인지의미론의 틀 속에 두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예컨대 Maienborn 1991; Steiniz 1992, 1997; 최균호 1999, 2000). 이들 연구에서는 결합가를 단순히 표층 통사구조 층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언어체계와 인지체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여기서 결합가는 동사의 의미구조에 내재해 있는 잠재적 능력이며, 이것이 개념구조와 상호작용하여 통사구조 층위에서 보충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⁴⁾ 여기서 ‘보충어 Ergänzung/Komplement’이라는 용어는 통사구조 층위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의미구조 층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술항 Argument’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인다.⁵⁾ 그리고 통사적인 ‘첨가어 Angabe/Adjunkt’에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수식어 Modifikator’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이른바 “2단계 의미론 Zwei-Stufen-Semantik”⁶⁾(Bierwisch 1983, Bierwisch/Lang 1987 등)이 토대가 되고 있다. 이 의미론 모델은, 언어표현의 의미는 서로 자율적인 두 모듈이 관여하여 구성된다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언어체계(문법)의 일부가 되는 의미구조 Semantische Struktur 층위와 일반 인지체계의 일부가 되는 개념구조 Konzeptuelle Struktur 층위가 그것이다. 의미구조 층위는 문법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 정보만 담으며, 개념구조 층위에는 언어 자체와는 무관한 세상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문맥 정보가 동원되어 추상적인 의미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다.

Maienborn(1991)에 따르면, 장소동사의 의미구조는 크게 두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곧, 개체와 공간 사이에 성립하는 “위치지정 관계 Lokalisierungsrelation”와, 개

4) 최균호(1999, 2000)는 어휘 항목이 갖는 잠재적 능력이 표시되는 “결합가 잠재력 Valenzpotenz” 층위와 이러한 능력이 표층구조에서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결합가 실현 Valenzrealisierung” 층위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결합가 기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견의 불일치는 그러한 구분을 엄밀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하지만 장소동사가 요구하는 장소 부사어가 의미구조 층위에서 서술항 Argument 역할을 하는지, 서술어 Prädikat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예컨대 Steinitz(1992, 1997)는 후자 쪽을 옹호하고 있다.

6) “2층위 의미론 Zwei-Ebenen-Semantik”으로 일컫기도 한다.

체의 위치 및 이동이 보이는 고유한 양태 Art und Weise를 나타내는 “양태 서술어 Modusprädikat”로 나뉜다. 장소동사의 의미구조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서술항(통사구조 층위에서 보충어 장소부사어로서 실현될 수 있음)이 들어가야 할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빈자리 자체는 의미구조 안에서 삭제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통사구조 층위에서는 보충어 장소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미구조 안에서 서술항 자리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존재 양화사를 통해 그 자리 속의 변항을 묶어 주는 전략을 통해 의미구조의 반듯함을 만족시켜 준다. 이러한 의미구조는 개념구조 층위에서 “위치지정 장소의 추상화 Abstraktion vom Lokalisierungsort”로 해석되어 실제 발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한다. 결국 장소동사의 의미구조의 두 성분 가운데 위치지정 관계를 “탈초점화 Defokussierung”함으로써, 그 나머지 성분인 양태 서술어를 “초점화 Fokussierung”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어 문장이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취할 수 있는 위치/이동의 양태들이 서로 대조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다양해야 한다고 Maienborn(1991)은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아래 문장들 가운데 (8)에서는 대상이 위치하는 양태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며 어느 한 양태를 부각시킬 수 있어서 이 문장들은 모두 허용된다. 반면에 (9)에서는 그러한 양태의 대조가 불가능하다(방이나 산이 취할 수 있는 자세에는 대조의 여지가 없다).

- (8) a. Rita steht/liegt.
 b. Die Weinflasche steht/liegt.
 (9) a. *Das Zimmer liegt.
 b. *Der Berg steht.

또한 흔히 보충어가 실현되지 않아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되었던 것들도 적절한 상황이나 문맥이 부여되거나([10], [11] 참조) 양태 부사어의 도움으로 빈약한 양태 서술어가 구체적으로 수식되어([12] 참조) 대조의 여지가 생기게 되면 특정 양태를 초점에 두는 반듯한 문장이 될 수 있다.

- (10) a. Das Haus steht. (예컨대 지진의 상황에서)
 b. Der Teppich liegt, der Schrank steht. (예컨대 이사의 상황에서)
- (11) a. Rita wohnt nicht, sie haust.
 b. Soll ich das Buch stellen oder liegen?
- (12) a. Rita wohnt schön.
 b. Das Zimmer liegt ruhig.

앞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시각은 이러한 Maienborn(1991)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균호(1999, 2000)는 인지체계에서 일어나는, 앞서 언급한 과정을 “탈공간화 과정 Delokalisierungsprozess”으로 부른다. 이것은 장소 부사어의 실현을 요구하는 “공간화 과정 Lokalisierungsprozess”과 함께 Bierwisch(1983)가 말하는 “개념적 자리옮김 konzeptuelle Verschiebung”의 한 형태가 된다.

갈래 3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입장을 좀더 발전시켜 의사소통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고자 한다.

3. 문제의 재해석과 정보구조론적 접근

3.1. 정보구조와 결합가 실현 사이의 관계

언어표현은 형태 측면과 의미 측면이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는 것인데, 이러한 언어표현의 의미 측면에는 ‘의미구조’, ‘개념구조’, ‘정보구조’⁷⁾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층위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 층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통사구조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대 문법이론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갈래 2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표현의 의미구조와 개념구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생성문법론과 의미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논의와 성과

7) 정보구조에 관한 최근의 체계적인 논의는 Vallduví(1992), Jacobs(1992a), Reis(1993), Lambrecht(199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가 있었다. 하지만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개념구조 층위에서 거론되었던 “초점화 Fokussierung”와 “대조 Kontrast”의 문제는 바로 정보구조 층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합가 문제를 정보구조의 측면을 끌어들여 재고찰하면, 보충어의 임의적 실현 및 첨가어의 의무적 실현과 관련한 결합가 문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정보구조에 대한 논의는 흔히 ‘주제-논평 구조 Topik-Kommentar- Struktur’와 ‘배경-초점 구조 Hintergrund-Fokus-Struktur’라는 두 차원을 설정하고 있다. 이 두 차원의 위상과 상관관계 그리고 두 차원의 통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정보구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을 토대로 하여 다소 약식으로 문제에 접근 하겠다.

결합가의 통사적 실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주제-논평 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먼저 사건발생을 나타내는 *sich ereignen*, *geschehen*, *passieren*, *ausbrechen* 같은 동사들은 보자. Helbig/Schenkel(1983: 449)은 *sich ereignen*을 주격 명사구와 부사어를 보충어로 요구하는 2가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13) *Der Urfall ereignete gestern.*

하지만 여기서 보충어로 오는 부사어의 유형에는 제약이 없어서 시간뿐 아니라 장소, 원인, 양태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14) a. *Der Mord ereignete sich an einem Montag.*
 b. *Der Mord ereignete sich im Nachbardorf.*
 c. *Der Mord ereignete sich wegen Eifersucht.*
 d. *Der Mord ereignete sich unter strenger Geheimhaltung.*

그런데 Helbig/Schenkel(1983: 449)은 *sich ereignen*을 처음부터 2가 동사로 설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순에 따라서는 보충어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을 주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곧, 주어가 문두에 오면 동사의 결합가는 대체로 2가 되고([13], [14] 참조), 그 문두의 자리에 허사 *es*가 들어서면 동사가 1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다(아래 [15] 참조).

- (15) a. Es ereignete sich *ein Mord*.
 b. Es ereignete sich *der dritte Mord*.

그러나 이런 식의 결합가 기술은 갈래 2에서 이미 언급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먼저 *sich ereignen*이 요구한다는 다양한 의미 유형의 부사어들은 보충어가 아니라 첨가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14)의 경우와 같이 한 자리에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래 (16)에서 보듯이 여러 자리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6) a. Der Unfall ereignete sich gegen 7.25 Uhr auf der Bismarckstraße. (Mannheimer Morgen, 20.08.1999, Lokales)
 b. Am 29. Mai ereignete sich im Gebiet Buechholz wegen Überlastung der Stromversorgung ein Stangenbrand. (St. Galler Tagblatt, 02.07.1999, Ressort: RT-URT)
 c. Der recht ungewöhnliche Vorgang (...) ereignete sich gestern zur Verwunderung der Korrespondentschar. (Mannheimer Morgen, 08.01.1991, Politik)

따라서 *sich ereignen*와 같은 사건발생 동사는 1가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통사구조 층위에서 의무적으로 첨가어가 요구되는 현상(아래 [17] 참조)은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17) a. *Der Unfall ereignet sich.
 b. *Der Mord geschah.
 c. *Der Brand brach aus.

(17)의 진술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 정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진술들은 앞서 언급되었거나 전제되어 있는 어떤 사태를 '주제 Topik'로 삼아 그것에 대해 어떤 새로운 정보를 담은 '논평 Kommentar'을 해야 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단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첨가어 부사어가 첨가되어 새로운 정보의 전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첨가어가 없어도 아래 (18)과 같은 진술들은 반듯하게 느껴진다. 물론 이 경우에는 (18')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문장강세가 부여되어야 한다⁸⁾. 그리고 위의 (15)에서 든 것과 같은 유형(아래 [19] 참조)도 (18)과 같은 성격의 진술로 볼 수 있다.

(18) a. Ein Unfall ereignete sich.

b. Ein Mord geschah.

c. Ein Brand brach aus.

(18') a. Ein UNFALL ereignete sich. (*Ein Unfall EREIGNETE sich.)

b. Ein MORD geschah. (*Ein Mord GESCHAH.)

c. Ein BRAND brach aus. (*Ein Brand brach AUS.)

(19) a. Es ereignete sich ein UNFALL.

b. Es geschah ein MORD.

c. Es brach ein BRAND aus.

(18), (19)의 진술들은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사건의 발생 자체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담은 첨가어가 없어도 새로운 정보 전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주어저 있는 어떤 대상을 주제로 삼아 그것에 관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발언 전체가 주제부-논평부 분절 없이 통째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⁹⁾

8) 독일어에서 새로운 정보, 곧 초점을 나타내는 문장 부분(초점부)에는 문장강세가 오는데, 이것은 초점부의 구성 요소 전체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초점부의 어느 한 요소가 초점부를 대표하여 받게 된다(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Uhmann[1991], 최재용/이민행[1999] 참조). 앞으로 이러한 문장강세를 받는 낱말은 대문자로 표시하겠다.

주제-논평 구조의 측면 외에도 배경-초점 구조의 관점을 고려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있다. 예컨대 동사 *verbringen*의 경우는 4격 목적어를 보충어로 요구하지만([20a] 참조) 이것만으로는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0b] 참조). (20b)은 (21)에서 보듯이 첨가어 부사어가 필요하다.

- (20) a. Er verbrachte *einen ruhigen Urlaub*.
 b. *Er verbrachte *seinen Urlaub*.
 (21) a. Er verbrachte seinen Urlaub *auf dem Land*.
 b. Er verbrachte seinen Urlaub *allein*.
 c. Er verbrachte seinen Urlaub *mit dem Zelt*.

휴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맥에서는 누군가가 휴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20b] 참조)는 정보가치가 없다. 곧 그것은 문맥이나 상황을 통해 전제되어 있는 ‘배경 Hintergrund’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어떻게 보냈냐는 것이 새로운 정보, 곧 ‘초점 Fokus’ 정보가 된다. 따라서 (21)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첨가어 부사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20)의 경우는 보충어 목적어 자체에 그러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첨가어 부사어가 없어도 된다. (21)의 진술들은 정보구조의 전체 틀에서 보면 *er*로 지칭되는 사람이 주제가 되어 그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이며 이 논평은 다시 배경 정보를 나타내는 배경부(*verbrachte seinen Urlaub*)와 초점 정보를 나타내는 초점부(*auf dem Land / allein / mit dem Zelt*)로 나뉜다.

- (21a) [Er]_T [*verbrachte seinen Urlaub*]_H [*auf dem LAND*]_F K .
 (T: 주제, K: 논평, H: 배경, F: 초점)

9) 연구 문헌들에서는 이런 유형의 진술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일컫고 있는데, “제시하는 thematic/presentational”, “사건을 보고하는 event-reporting”, “모두 새로운 all-new”, “모두 초점이 되는 문장 all-focus” 문장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Lambrecht 1994 참조).

3.2. 장소동사의 결합가와 정보구조

이제 3.1에서 살펴본 관점을 토대로 하여 갈래 2에서 논의했던 독일어 장소동사의 결합가 문제를 다시 고찰해 보겠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장소동사에서 일반적으로 그 보충어로 인정되고 있는 장소 부사어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통사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충어 부사어가 보이는 그러한 행태는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는 동사의 결합가(서술항구조)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체계(문법)와 상호작용하는 일반 인지체계(개념체계)에서 일어나는 해석 과정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정보구조 층위도 언어체계와 일반 인지체계의 접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구조 층위와 정보구조 층위의 위상과 그것들 사이의 가능한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이론이 없지만, 3.1에서 간략히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은 가능하다고 본다.

언어표현은 그 형태 측면이 의미구조와 정보구조의 매개로 개념체계 안에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문법 자체는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는 동사의 결합가 자체의 실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체계 안에서 해석과 관련된 각 층위의 구조적, 의미적 자질들이 해석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 주면 된다. 그러한 언어표현이 최종적으로 의미있는 문장으로 해석되고 아니 되고는 문맥과 상황이 제공하는 지식과 세상에 관한 지식이 처리되고 저장되는 인지체계 안에서 결정될 일이다.

예컨대 ‘누구를 태워다 주다’의 뜻으로 쓰일 경우의 *fahren*에서 보충어 방향 부사어는 흔히 임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Helbig/ Schenkel 1983: 239 참조), 이 동사를 써서 예컨대 화자가 (22)와 같은 발언을 맥락도 없이 불쑥 상대에게 하면, 그 상대는 물음 내용에서 빠져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22)의 B 참조). 곧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어서 물음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23)에서와 같이 맥락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장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목적지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2) a. A: Fährst du mich? - B: Wohin?

b. A: Kommst du auch? - B: Wohin?

(23) a. [Ich muss um 10 Uhr *in der Uni* sein.] Fährst du mich?

b. [Morgen bin ich *im Institut.*] Kommst du auch?

(Maienborn 1991: 100)

장소 부사어가 생략되었을 때 이처럼 복구가 가능한 것은 배경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장소동사에서 그런 식으로 보충어 부사어의 복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24) a. [Ich habe ihr das Buch *ins Fach* gelegt.] *Es liegt immer noch.

b. [Das Sofa soll *an die Wand.*] *Stellst du es?

(Maienborn 1991: 100)

Maienborn(1991)은 그러한 복구가 (23)과 같은 이동동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24a)에서는 위치동사 *liegen*이, (24b)에서는 사역 위치동사 *stellen*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위치동사의 의미구조는 Maienborn(1991)이 분석하는 것처럼 위치지정 관계와 양태 서술어라는 두 성분으로 나뉜다. 여기서 위치지정 관계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으면 위치 양태가 초점에 있게 된다.

(25) a. Ich habe den ganzen Tag GELEGEN.

b. Soll ich die Weinflaschen STELLEN oder LEGEN?

c. LEG das Buch nicht, STELL es!

그런데 (24a)는 문맥에서 언급된 책이 예컨대 ‘세워져’ 있지 않고 ‘눕혀져’ 있는 양태를 새로운 정보로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다. 그보다는 문맥에서 언급된 책이 언급된 장소에 아직도 그대로 ‘있음’을 단순히 나타낼 의도로 쓰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있음’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서술어(예컨대 *liegt ... da*)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해석된다. (24b)의 경우도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도 문맥에서 언급된 소파를 세워둘 것인가 눕혀둘 것인가 하는 위치 양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4b)는 그것을 문맥에서

언급된 위치로 단순히 ‘옮겨’ 줄 것을 상대에게 부탁하는 표현이다. 곧, 위치 양태가 초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실현되어야 한다(예컨대 *Stellst du es hin?*).

이 문제는 Steinitz(1992a: 40이하)에서도 다루고 있다. 거기서는 보충어로서 위치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은 채 사역 위치동사들이 쓰이고 있는 (26)과 같은 문장들이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 (26) a. *Peter stellt sich.
- b. *Er setzt/stellt/legt das Kind.
- c. *Er klebt die Briefmarke.
- d. *Er hockt sich.
- e. *Er hängt sich.

이 동사들에서는 보충어 부사어의 의무적 실현이 요구되며, 이것은 동사 자체를 초점에 두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Steinitz(1992a)는 가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어떤 단위의 의미 일부를 초점에 둘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언의 영역 *Assertionsbereich*”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그런데 사역 위치동사의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감 *Übergang*”(CHANGE)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성분만 주장되고, 옮겨질 구체적인 상태(예컨대 ‘서 있음 STEH’, ‘앉아 있음 SITZ’ 등)는 함축적으로 전달될 뿐이라고 말한다. Steinitz(1992a)의 이러한 입장은 (26)과 같은 문장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장들은 직관적으로 볼 때 완결되지 않은, 정보의 보충을 요구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진다. 무엇이 어떤 위치로 가 있게 만들을 진술하는 데서 그 위치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 정보를 나타내는 위치 부사어가 실현되면, 초점 강세는 그 위치 부사어에 오게 된다.

- (27) a. Peter stellt sich ans FENSTER.
- b. Er setzt/stellt/legt das Kind auf die COUCH.
- c. Er klebt die Briefmarke auf den BRIEF.
- d. Er hockt sich ans FEUER.
- e. Er hängt sich an seine MUTTER.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역 위치동사의 경우에도 위치 양태를 초점에 둘 수 있고(곧, 단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치 부사어를 실현시키지 않고 동사 자체에 초점강세를 둘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7)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위에서 든 (25b, c)에 제시된 것과 같은 상황이나 문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또한 정보구조에 다른 초점강세 패턴이 보충어 또는 첨가어로서의 부사어의 위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sich verabreden*이 들어간 문장에서는 여러 보충어들이 임의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정보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보충어로 쓰인 것인지, 첨가어로 쓰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9)-(31)은 (28)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이다.

(28) Was ist geschehen?

(29) Walter hat sich mit INGRID verabredet.

(30) a. Walter hat sich mit Ingrid im Park VERABREDET.

b. Walter hat sich mit Ingrid im PARK verabredet.

(31) a. Walter hat sich mit Ingrid am Montag VERABREDET.

b. Walter hat sich mit Ingrid am MONTAG verabredet.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성분을 좁은 초점영역으로 삼아 거기에 초점강세를 둘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교적 넓은 영역을 초점영역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영역의 모든 성분들에 강세를 두지 않고 어느 특정 성분에 대표강세를 두게 된다. (28)과 같은 문맥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29)-(31)이 최대 초점영역을 갖는다. 여기서 대표강세는 동사와 인접한 보충어가 받는다([29], [30b], [31b]의 경우). (30)과 (31)이 보이는 차이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성격에서 비롯한다. 부사어에 강세가 오지 않은 (30a), (31a)에서는 그 부사어가 첨가어로 쓰이는데, 약속이라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나 시점을 추가로 알리는 기능을 한다. 반면에 부사어에 문장강세가 와 있는 (30b), (31b)에서는 그 부사어가 문장 전체라는 초점영역을 대표하여 강세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사어는 보충어 자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 약속이라는 사건 자체에 포함되는 요소, 곧 약속 장소/시간이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차이를 한국어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30') a. 발터가 잉그리트와 공원에서 무슨 약속을 했다.
 b. 발터가 잉그리트와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31') a. 발터가 잉그리트와 월요일에 무슨 약속을 했다.
 b. 발터가 잉그리트와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4. 마무리와 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독일어에서 부사어는 동사구나 문장을 수식하는 첨가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사의 보충어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결합가나 서술항구조를 기술할 때 특히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장소동사가 보충어로 요구하는 장소 부사어를 중심으로 결합가 문제를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했다.

동사의 결합가 자체는 어휘부에 기재되어 있는 동사의 잠재적 능력으로서 그것이 항상 실제 문장의 표층 통사구조에서 모두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개입하여 그 실현을 결정하게 된다. 장소동사의 결합가 문제는 특히 인지체계와 언어체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입장은 바로 정보구조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느 특정 의미요소에 대한 초점화라든지 초점에 두어진 요소들의 대조적 선택의 여지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정보구조론에서 말하는 주제-논평 구조와 배경-초점 구조의 틀 속에서 재해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재해석과 설명 방법은 장소동사의 결합가와 관련한 부사어 처리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결합가 실현과 관련한 다른 영역의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테면 첨가어 부사어의 의무적 실현과 관련한 문제나 목적어의 의무적 및 임의적 실현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예컨대 (32)에서 동사의 결합가에 묶이지 않은 부사어들의 의무적 실현은 정보가치와 관련성 있는 발언을 위해 초점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 (32) a. Das Buch liest sich GUT.
 b. Hier lebt es sich ANGENEHM.

또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른바 ‘주제어 탈락’(Null-Topik) 구문도 정보구조의 원리에 따라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33) a. Habe ich schon GESEHEN. (← *Das* habe ich schon gesehen.)
 b. Habe das schon GESEHEN. (← *Ich* habe das schon gesehen.)

이 형식은 문장의 앞마당 Vorfeld에 원래 와 있어야 할 성분이 입말에서 흔히 탈락해서 생기는 것이다. 독일어에서 앞마당은 주제어가 들어서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내용은 결합가와 정보구조의 상관관계를 단편적인 예를 통해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결합가 실현의 메커니즘 규명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최균호(1999a): “이원적 발렌츠 모델”. *독어학* 제1집, 한국독어학회, 91-118.
 최균호(1999b): “독어 동사 *wohnen*의 발렌츠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7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87-507.
 최균호(2000): “수의적 보족어의 실현 메커니즘 - 보족어의 수의성은 예측 불가능한 개별 어휘적 특성인가?” *독어학* 제2집, 한국독어학회, 101-128.
 최재용/이민행(1999): “초점”. 강범모 외: *형식의미론과 한국어기술*. 한국문화사.
 Ágel, Vilmos (1995): Valenzrealisierung, Grammatik und Valenz.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3, 2-32.
 Bierwisch, Manfred (1983): Semantische und konzeptuelle Repräsentationen lexikalischer Einheiten. In: R. Ružička / W. Motsch (Hrsg.), *Untersuchungen zur Semantik*. Berlin: Akademie-Verlag, 61-99.
 Bierwisch, Manfred / Lang, Ewald (1987): *Grammatische und konzeptuelle Aspekte von Dimensionsadjektiven*. Berlin: Akademie-Verlag.
 Helbig Gerhard / Schenkel, Wolfgang (1983): *Wörterbuch zur Valenz und Distribution deutscher Verben*. Tübingen: Niemeyer.
 IDS-Grammatik (1997): Zifonun, Gisela et al. (Hrsg.): *Grammatik der deutschen*

- Sprache*. 3 Bde. Berlin: de Gruyter.
- Jacobs, Joachim (Hrsg.) (1992a): *Informationsstruktur und Grammatik*. Opladen/Wiesbaden: Westdeutscher Verlag.
- Jacobs, Joachim (1992b): Syntax und Valenz. In: L. Hoffmann (Hrsg.), *Deutsche Syntax. Ansichten und Aussichten*. Berlin/New York: de Gruyter, 94-127.
- Jacobs, Joachim (1994): Das lexikalische Fundament der Unterscheidung von obligatorischen und fakultativen Ergänzungen.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22, 284-319.
-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ienborn, Claudia (1991): Bewegungs- und Positionsverben: Zur Fakultativität des lokalen Arguments. In: E. Klein / F. Pouradier-Duteil / K.-H. Wagner (Hrsg.), *Betriebslinguistik und Linguistikbetrieb. Akten des 24. Linguistischen Kolloquiums, Universität Bremen, 4. - 6. September 1989*. Bd. 2. Tübingen: Niemeyer, 95 - 106.
- Nikula, Henrik (1999): Semantische oder pragmatische Valenz. In: *Neuphilologische Mitteilungen* 100, 389-402.
- Reis, Marga (Hrsg.) (1993): *Wortstellung und Informationsstruktur*. Tübingen: Niemeyer.
- Steinitz, Renate (1992a): „Modern“: Argumentstruktur, „Traditionell“: Valenz - Versuch eines Brückenschlags. In: *Linguistische Berichte* 137, 33-44.
- Steinitz, Renate (1992b): Durative und inchoative Prädikate und die Adverbialkomplemente von Verben. In: L. Hoffmann (Hrsg.), *Deutsche Syntax. Ansichten und Aussichten*. Berlin/New York: de Gruyter, 186-205.
- Steinitz, Renate (1997): Valenznotwendige Präpositionalphrasen: weder Argument- noch Adjunktposition. In: Ch. Dürscheid / K.-H. Ramers / M. Schwarz (Hrsg.), *Sprache im Fokus. Festschrift für Heinz Vater zum 65. Geburtstag*. Tübingen: Niemeyer, 329-350.
- Storrer, Angelika (im Druck): Ergänzungen und Angaben. Erscheint in: V. Agel / L. M. Eichinger / H.-W. Eroms / P. Hellwig / H. J. Heringer / H. Lobin (Hrsg.): *Dependenz und Valenz.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der zeitgenössischen Forschung*. Berlin u.a.: de Gruyter.
- Vallduví, Enric (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London: Garland.

Uhmann, Susanne (1991): *Fokusphonologie*. Tübingen: Niemeyer.

Zifonun, Gisela (1995): Wieviele Valenzrelationen braucht eine Grammatik? In: L. M. Eichinger / H.-W. Eroms (Hrsg.): *Dependenz und Valenz*. Hamburg: Buske, 177-190.

Zusammenfassung

Valenz und Informationsstruktur - Zum Problem der Valenzrealisation lokaler Verben im Deutschen

Kang, Byeong-Cha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einige Aspekte der Interaktion zwischen Valenz und Informationsstruktur am Beispiel der deutschen lokalen Verben behandelt. Lokale Verben stellen ein Problem für die Beschreibung der Valenz (bzw. Argumentstruktur) dar, da ihre Adverbialergänzungen sowohl obligatorisch als auch fakultativ sein können und es noch kein handhabbares syntaktisches Kriterium gibt, das fakultative Adverbialergänzungen von freien Angaben klar trennen könnte. Die hier sehr stark voneinander abweichenden Einschätzungen führen oft zur Entwicklung von immer differenzierteren Valenzmodellen. Dazu zählt ein Mehrebenenmodell, das sich an die sogenannte „Zwei-Stufen-Semantik“ von Bierwisch und Lang orientiert. In diesem Rahmen sind in der letzten Zeit einige Arbeiten entstanden, die sich mit der obengenannten Problematik beschäftigen. Hier wird die Fakultativität der lokalen Ergänzung von Bewegungs- und Positionsverben auf Prinzipien des semantischen und konzeptuellen Systems zurückgeführt. Die in diesem Zusammenhang oft angenommenen kognitiven Mechanismen wie „konzeptuelle Verschiebung“, „Fokussierung“ des Modusprädikats, „Defokussierung“ der Lokalisierungsrelation, „Alternativenbildung“, „Kontrastiertheit“ u. a. sind aber mit den informationsstrukturellen Begriffen und Mechanismen kompatibel, und das Phänomen der Fakultativität der Adverbialergänzung bzw. der Notwendigkeit der Angabe ist auch unter Perspektive des Zusammenspiels von Grammatik und Informationsstruktur (Topik-Kommentar-Struktur und Hintergrund-Fokus-Struktur) erklärbar.

[검색어] 결합가, 정보구조, 부사어

Valenz, Informationsstruktur, Adverbial